DAY LIFE _ DAY DREAM

2018.08.17.Fri~08.30.Thu

Opening 2018.08.17.Fri

예술공간 이아 갤러리 2

| 일러두기 |

1. 이 책은 2018년 8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예술공간 이아에서 진행되는 기획전 〈Day Life–Day Dream〉의 전시도록이다.
2. 작가 이름은 각 나라 표기법을 따르며 성은 대문자로 표기하였다.
3. 도판 설명은 작가명, 작품명, 재료 및 기법, 크기, 년도 순이다.
4. 도판 사이즈의 순서는 세로×가로(평면), 깊이×폭×높이(입체) 의 순이다.

CONTENTS

004 / 인 사 말 Greeting
006 / 기획의 글 Foreword
008 / 작가소개 Artists

동시대 청년작가들의 현실 인식과 욕망 사이에서

이 경 모 / 예술공간이아 센터장(예술학박사)

현대미술은 일상과 현실을 재현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외부 자연 대상이나 삶의 피상적 면모 등을 묘사하지 아니하며, 피상적 리얼리티 내면에 존재하는 삶의 실체적 상황을 끄집어내려 한다. 특히 인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어떤 물질 속에 실재의 형상을 생생하게 재현하는 것 못지않게 정신의 표현이란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논리적으로 실재의 모방, 상상 혹은 이상형의 창조, 정신의 육화 등 재현의 목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지점에서 필자는 20세기 전기 극단적인 추상화 경향 등으로 인해 이전까지 크게 억압되어 있던 신체가 미술에 나아가 문화전반에 전면으로 재등장하게 하는 점에 주목한다. 일상과 상상의 너머 또는 존재와 부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작가들과 작업에서 어떤 것을 모사하여 재현해내는 것, 의미 그 자체가 주어진 바의 것을 벗어난, 또 다른 리얼리티를 찾고자 하는 욕망의 반영인 것이다. 우리의 표현대상은 이제 그 자체의 고유한 낯섦, 고유한 평범함, 또는 그 자체의 고유한 경악으로만 돌려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와 있다.

미술사에서 일상의 표현은 모방과 재현의 간극에서 사회적 현실, 소외의 드러냄을 통한 인식 간의 충돌이 주된 테제였다. 그리고 모더니즘 미술에 와서는 보편성 내지는 외형의 재현보다는 본질의 추적을 통한 참된 진리의 표상, 그리고 예술가 또는 관객이 자연과 사회를 보는 눈의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리얼리티의 실상과 허상들이 주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일상 속에서 읽혀지는 이미지와는 상반되고 미술로서 읽혀지기도 모호한 상태의 사물을 전치 시켜 전시물을 바라보게 될 대중들로 하여금 자기로부터의 긍정적인 삶의 궤적을 되돌아보게 하고 예술가, 예술, 인생이 동등한 수평적 관계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범주적 개념으로 보편화하기에는 인식론적 관계 설정상 무리 되는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오히려 관념적으로 흘러가게 됨으로써 리얼리즘이라는 철학적 의미의 연관성과도 배치되는 모순을 드러내게 된다. 따라서 본 전시에서는 참여 작가들의 리얼리티에 대한 서술방식과 기획자의 관점, 더 나아가 현대미술과 리얼리티의 관계에 관한 변화에 주목함으로써 현대미술 속에서의 리얼리티의 반영방식 및 그 속성에 대하여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본 리얼리티란 현대든 과거든 언제나 다양한 사실들의 거대한 파노라마였으며, 본질적으로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다. 그렇다고 과거의 리얼리티와 현대의 리얼리티는 똑같다는 말은 아니다. 오늘날은 이전보다 사회가 더 복잡해지고 보다 큰 재앙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고 과학기술도 놀라운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만큼, 일상적 리얼리티 자체는 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눈 앞에 펼쳐진다. 특히 젊은 작가의 시각으로 본 일상은 리얼리티 자체보다는 그 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들이다. 본 전시가 궁금해 하는 것이 이 부분이다.

이 전시는 20–30대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 작업을 제주도민 및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젊은 미술을 공유케 하고 작가 서로의 교류와 협업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추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고하고자 기획하였다. 아울러 제주에서, 톡톡 튀는 한국 현대미술의 새로운 경향을 소개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전시는 제도권 미술판에 진입하지 못하고 주변부를 맴도는 신진작가들의 작품세계를 통하여 그들의 실존적 고민은 무엇이며 표현 언어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동시대 제주 청년작가들의 현실 인식과 욕망 사이에서 그들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관심거리다. 이를 통하여 구태로 얼룩진 미술판의 일신을 도모하고 창작에서 소비에 이르는 미술의 시공간적 전개과정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삶의 예술, 진정성의 예술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Between Reality and Desire of Contemporary Young Artists

Lee Kyung Mo / Director of Art Space IAa, PhD in Art Science

Contemporary art does not simply describe natural objects or superficial aspects of life even though it takes the representation of every day and reality. It aspires to draw out actuality of being under the surface of reality. When the object of art is a human body, in particular, the spiritual elements are emphasized as much as the realistic description of the substance. It is apparent that the goal is a logical representation of imitating reality, the creation of an ideal figure or imagination and an incarnation of spirit. At this point, I focus on the fact that the body, which had been largely oppressed due to the extreme trend of abstract art in the early 20th century, appears not only in the art scene but the overall culture. Artists are walking a fine line between life and what is beyond imagination, and it is a reflection of their desire to imitate and reproduce something in their work, or rather, something between existence and absence, searching for another reality that is beyond the usual meaning in itself. The subject of our expression has presented itself as a form of something beyond inherent unfamiliarity, usualness, or astonishment.

In art history, the depiction of daily life has been the main subject as the clash between society and alienation in the gap between imitation and reproduction. In modernist art, the primary focus appeared on realizing the truth by tracing the essence of being rather than an expression of universality or impression of looks, as well as the capricious face of reality and illusion by the artists' or audience's view of nature and society. The viewers trace their lives on the positive note and view art, artists and life lie on the same ground by transposing the objects that contradict the prevailing notions with uncertain status in the artistic context at the same time. However, it is not only unreasonable to generalize the epistemological relation of such manifestation into a category, but it also reveals a contradiction that opposes to the philosophical meaning of realism by becoming rather abstract. For these reasons, this exhibition will focus on the description of reality by the participating artists, the director's perspective, and the shif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emporary art and reality, contemplating on the method and quality of it.

Reality examined above has always been a panoramic view of numerous facts regardless of the time, and it has not changed much in essence. However, it does not mean the truth of the past and the present are not the same. Today's world is more complicated than ever before; catastrophes can occur in a short time, and science and technology are developing at a remarkable pace, putting the sense of reality in much more different ways. Especially, life from the perspective of a young artist implies more diverse values than what lies beyond reality. This exhibition presents such points and hopes to explore more.

The exhibition is designed to offer experimental works of young artists in their 20s and 30s to the people of Jeju and promote creative activities through interaction and cooperation between artists. Besides, it will be an essential platform to introduce a new trend of Korean contemporary art in Jeju. In this sense, the exhibition will be an opportunity for the emerging and struggling artists to show their existential concerns as well as their language development. Also, it is also important to contemplate what the contemporary young artists in Jeju are pursuing between their perception of reality and desire. I look forward to seeing the art of life, the art of authenticity that will inspire the renewal of the art scene stained with convention, refreshing the process of spatiotemporal development of art from the creation to sales.

일상의 표현, 상상의 현현(顯現)

김 유 민 / 예술공간이아 큐레이터

제주문화예술재단 2층에는 '이로움이 더해가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청년예술가 창작공간 이층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이 공간의 청년 신진예술가들과 예술공간 이아의 협업으로 꾸며진 것이다. 대체로 신진작가들의 전시는 보는 이로 하여금 전체 주제보다 어떤 작가들이 어떤 작품을 내놓았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내보이는 신진작가들에 대한 기대감과 새로운 미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또한 신진작가들의 미술계의 등단은 앞으로 미술계를 이어갈 인재들을 세상에 등단시키는 관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미술계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번 전시의 주제인 〈Day Life Day Dream〉은 '예술의 환상을 깨는 일' 바로 일상으로 예술을 말하는 것이다. 앙리 르페브르도 인간이 땅 위에 뿌리를 박고 영원히 지속하는 것이 '일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상은 삶이 지속하는 한 벗어날 수 없으며, 현대미술에서도 비껴갈 수 없는 주제이다. 새로움을 창조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예술과 특별하거나 유일한 것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일상적 요소를 7명의 신진작가는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한 '일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시각화하여 제시한다.

참여 작가 7명 중 박준석을 제외하고 6명의 작가는 모두 제주 출신 작가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제주도 이야기를 어떻게 담고 있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7명의 작가는 그들이 바라보는 삶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눈에 보이는 수수한 일상'은 '현지인만 느끼는 특수한 제주의 문화와 자연'이 아니라 한 예술가로서 예술적 삶과 현실적 삶의 간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억, 일상, 시간, 삶의 움직임과 유동성 등의 단어를 이미지화하여 일상 속에서 작가가 선택하고 재구성하는 요소에 관심을 둔다. 이는 일상의 표현이자 상상의 현현, 꿈을 이야기하는 상상의 세계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일상'이라는 단어는 '공감'이라는 단어와 연결될 수 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미디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혁명 덕분에 '공감'이란 단어는 이 시대의 키워드가 되었다.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네트워크가 전 세계와 접촉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은 그 접점이고, SNS(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는 세상과 연결해주는 소통의 창구이다.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와 감정을 토로하고, 어떤 이들은 거기에 맞장구를 쳐주고 공감해준다. 공감은 차이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을 찾는 삶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공감의 시대는 열린다. 공감은 우리의 일상과 유리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감'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소소한 것이다. 지루한 일상의 한 장면이나 생활 속의 사물들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새로운 것이 될 수 있는데 일상적인 것에 의미를 두는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지루한 일상이 아름답고 소중한 순간이 되는 경험과 함께 일상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번 전시는 일상을 예술로 바라볼 때 발생할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일상을 새롭게 마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경험할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전시는 자신이 하는 작업의 실체를 인식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케 할 자기 성찰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동시에 작품을 매개로 하는 인간적, 사회적 소통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전시장 앞의 작은 공간에는 '작가에게 전하는 글' 코너를 준비하였다. 스튜디오에서 제작되거나 발상한 아이디어를 펼쳐 보인 작가와 이를 본 관람객과의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공감하고 공감하는 것. 누군가와 차이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내고 소통하는 것. 공간과 시간을 잇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술의 힘일 것이다.

Portraying Everyday Life, Revealing Imagination

Kim Yu Min / Curator of Art Space IAa

Young Artist Creative Studio Second Floor project has successfully launched on the second floor of Jeju Culture and Arts Foundation, which intends to be the "space where goodness keeps on growing." This exhibition is a collaborative work of young emerging artists and Art Space IAa. Emerging artists' exhibitions generally make the audience curious about what the new artists have brought to the show more than what the theme of the exhibition is. It perhaps stems from the audience's anticipation of the new artists who carefully present their work to the world as well as their expectation of the art scene. Also, the emergence of new artists has been the primary concern for the Korean art scene because it has served as a gateway to bringing talented people.

The theme of this exhibition "Day Life Day Dream" is about art presented in everyday life, "shattering the illusion of art." Henri Lefebvre once said that "every day" is what man continues to repeat forever, rooting himself on the ground. Every day is inescapable as long as life lasts, and it is a subject that is always contemplated in the contemporary art. Seven young artists interpreted and visualized multiple aspects of both art that creates new and every day which is far from exceptional or unique.

Among the seven artists, all six artists, except for Park Jun-seok, are from Jeju. However, their narrative is not about how they depict the life of the Jeju island. The seven artists want to present stories about life from their perspectives. Their ordinary every day is not necessarily about the original culture or nature from the locals' point of view, but it is a story of an artist who bears the gap between artistic life and reality. They focus on the elements from the daily life and reconstruct them by depicting words such as memory, daily life, time, movement of life and fluidity. It is an expression of everyday life, and a visualized imagination as a world of dreams at the same.

The word every day is associated with the word empathy. Empathy is an emotional response to the feelings of others. Thanks to the communication revolution by the appearance of media, the word empathy became a keyword in this age. We live in the time where our very personal and private networks come into contact with the whole world. The smartphone is the ultimate interface of it, and SNS(Twitter, Facebook, and Instagram) are the channels of communication that connect us to the world. Anyone can share his or her stories and emotions, and others respond to and sympathize with them. Empathy is finding what is common in life rather than what is different. From this point on, the age of empathy opens. Empathy is not an isolated element from our life. Empathy we know is extremely ordinary and small. A scene from a dull day or daily objects can turn into something original from different perspectives. The artists put values in the ordinariness of life, by which the audience can appreciate the moment that transforms daily life into something beautiful and precious. In short, this exhibition is a narrative about the changes that occur when every day is examined in art. I hope that the show brings an opportunity that allows the audience to appreciate every day from different angles.

Participating in an exhibition lets artists face the true nature of their work and have a chance of self-reflection and self-realization that assess the direction in the coming days. At the same time, it is the artists' first step in human and social communication through the medium of artwork. For that reason, we have prepared a small space called "Note to Artists" in front of the exhibition hall. It is intended to create a place of empathy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 audience and the artists who presented their ideas and what they produced in the studio. Sympathizing and receiving sympathy from others, identifying and communicating with others rather than focusing on differences, connecting space and time and moving the people's minds; this is precisely the power of art.

김윤지 KIM YOON-JI
박종호 PARK JONG-HO
박준석 PARK JUN-SEOK
손유진 SON YU-JIN
이가희 LEE GA-HEE
이강인 LEE GANG-IN
현 진 HYUN JIN

김윤지 Kim Yoon-Ji

두 사람 Two People, 캔버스에 유채, 90.9 × 72.7cm, 2018

김윤지는 인물의 감정을 모티브로 하여 작업한다. 그림 안의 인물들은 대체적 부정적이고 그 감정이나 느낌을 버리지 않고 계속 품고 있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녀는 어떤 개념이나 담론을 담기보단 드로잉 작업을 바탕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더 주력하고 있다. 2017년 〈판화특별전〉 초록빛 아트갤러리(제주) 단체전에 참가하였으며, 올해 초록빛 아트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가졌다.

Kim Yoon Ji takes emotion as the central motif in her work. The figures in her paintings generally bear negativity, holding on to their feelings and emotions. She focuses on describing her feelings in drawing rather than presenting specific concepts or discourses. She participated in a group exhibition of Special Print Show at Green Light Art Gallery, Jeju, in 2017, and held her first solo show at the same gallery this year.

나는 그림에 어떤 개념이나 큰 담론을 담기 보다는 작품에서 그림을 그릴 때나 그림 안 공간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과 나의 상황이 드러나게끔 하려고 한다. 보통 불편하고 긴장된 감정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 그런 감정들이 비교적 직관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대부분 시간을 보낸 가정에서의 영향이 가장 크기에 가부장의 상징 안에서 자란 지금까지의 나로서는 불편함과 무기력함이 내 그림의 일부가 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작품들의 인물들은 내가 가진 불편함의 투영이며, 이로써 나와 같은 이들에겐 공감을 다른 이들에겐 이해를 바라는 마음이다.

I try to express a mental state when I paint rather than to convey ideas or narratives on canvas. I am usually nervous and tense when I paint, and such emotions often reveal themselves intuitively. However, what influenced me on how I see the world and express it came from my family which was a typical patriarchal environment. The sense of discomfort and helplessness stem from it, and it is a big part of my painting. The characters in my works are the projection of my trouble. I hope for empathy from others like myself and for understanding from those who do not share the same experience.

in Cafe Seoro, 캔버스에 유채, 90.9 × 72.7cm, 2018

박종호 PARK Jong-Ho

밤의 사람들 Night People, 캔버스에 아크릴, 91.0×91.0㎝, 2018

박종호는 주변에서 느낀 감정을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과 표현 방식으로 캐릭터화하여 표현하는 작가이다. 2018년 초록빛 아트갤러리(제주)에서 첫 개인전을 가졌으며, 2017년 〈初〉 애월해차롱 카페(제주), 〈제주청년작가 이층사업 오픈스튜디오〉 제주문화예술재단 2층(제주), 2016년 〈on-air 적재중량 0〉 학생문화원(제주) 단체전에 참가하였다. 2018년 제주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그는 2017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층사업 1기 레지던시로 들어가면서 사랑, 만남 등을 주제로 한 작업을 그려내고 있다.

Park Jong Ho depicts what he perceives around him in his unique visual style. He held his first solo exhibition at Green Light Art Gallery, Jeju, in 2018, and participated in 初 at Aewol Haechalong Cafe and Jeju Young Artist Second Floor Open Studio at Jeju Culture and Art Foundation in 2017. In 2016, he participated in on-air loading weight 0 at Jeju Students Cultural Center. Having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Western Painting at Jeju National University in 2018, Park has just begun his career in the world. He started his residency work at Jeju Culture and Art Foundation's 2nd Floor Project in 2017, mainly focusing on the theme of love and relationships.

암흑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이나 잠을 잘 때 보이지 않는 세계로 입장하게 된다. 시각적으론 보이질 않지만 꿈으로는 많은 것을 보게 된다. 꿈은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도,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할 때도 있다. 우리가 경험하고 느껴왔던 것이 상상으로 연결되는 것일까. 일상에서의 익숙한 형상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형상은 잠에서 깨는 순간 잊히기 마련이다. 분명 기분 좋은 꿈이었는데 막상 깨어나면 그 형상이 기억이 잘 나질 않는다. 아마도 흐릿한 색으로 인해 묻히는 것 같았다. 현대 도시를 밝게 비추는 네온 빛처럼 강렬하고 뇌리에 박히면 깨어나도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을까? 네온 빛은 어찌 보면 딱딱하고 차갑지만, 또 어찌 보면 강렬하고 포근해 보일 때도 많다. 우리의 도시를 밝혀주는 이 빛이 우리의 꿈속을 영원히 비춰주길 바란다.

Darkness hides everything from your eyes. The moment we close our eyes or fall asleep, we enter the world of the invisible. We see a lot of things that do not reveal themselves in real life. Dreams can make us feel happy, and sometimes they disturb us. What we have experienced and perceived may have been transferred to the imagination. Familiar, daily figures appear in the dream, but they disappear beyond our memory at the moment of waking up. We even forget a naturally pleasant dream which is getting washed away by hazy colors. What if dreams are as intense as a neon light in the dark city; will impressive figures that struck our memory stay with us? The neon light is cold and harsh in a sense, but there are many times when it is secure and warm. I hope the light that illuminates our city will illuminate our dreams forever.

박준석 PARK Jun-Seok

2018–1 겹치다 2018-1 Overlapped, 캔버스 위에 종이 · 피그먼트 잉크, 80.4×100㎝×8ea, 2018

박준석은 회화, 미디어 작가로 서울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였다. 2014년 제주로 이주한 그는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고목'을 선택하여 서양 현대미술의 방식으로 작품을 구현한다. 2016년 〈Conceptlessness〉 켄싱턴호텔 갤러리(제주)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2018년 〈식물성〉 예술공간 이아(제주), 2016년 〈제주 청년작가 2인전〉 ICC JEJU(제주), 2015년 〈진경미술대전〉 강서문화원(서울), 2014년 〈겸재회화 정신전〉 겸재정선기념 기획전시실(서울), 〈campus10 art festival〉 63빌딩(서울) 그룹전에 참가하였다. 서울대학교 졸업 미술전시회에서 총장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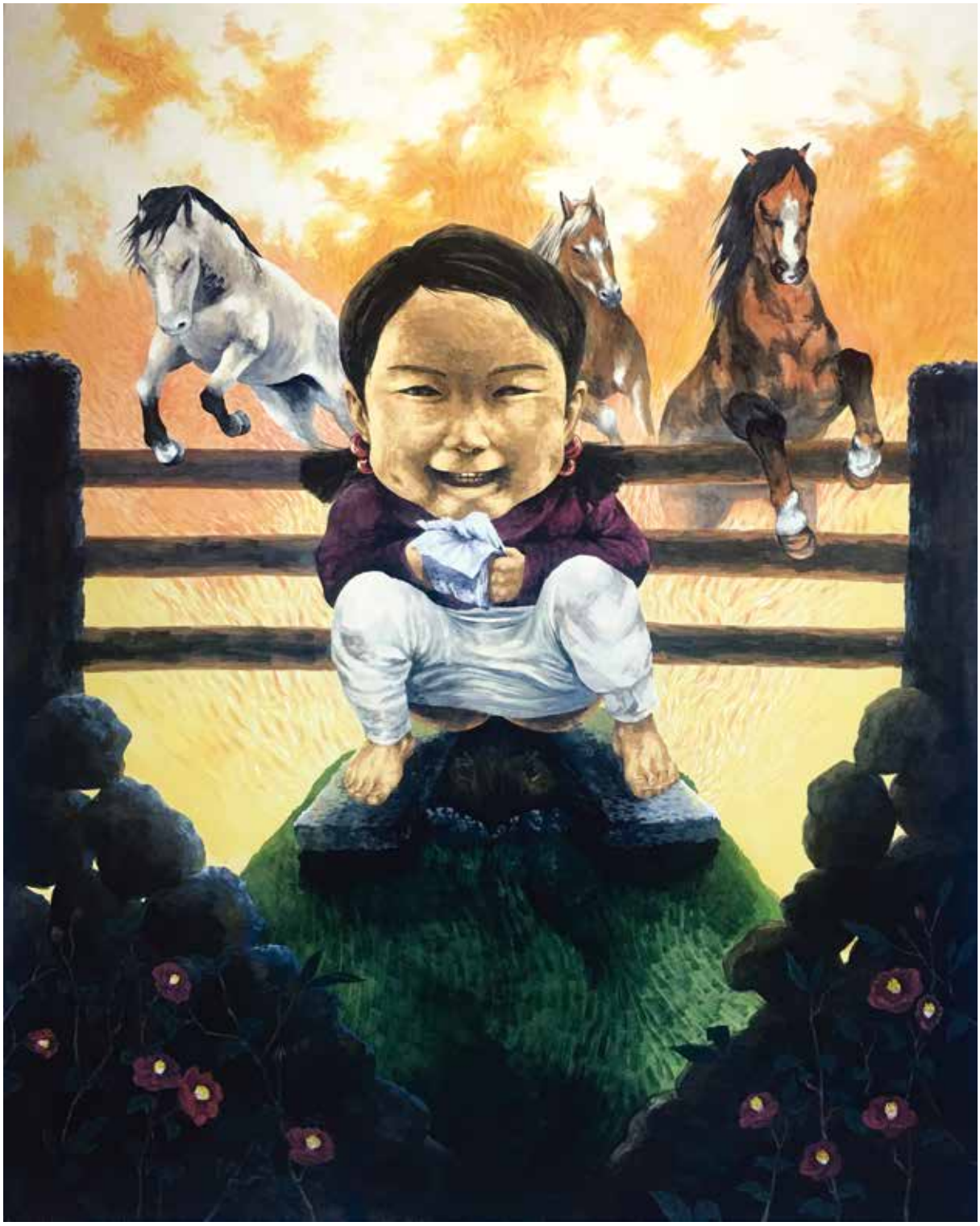
Park Jun Seok is a painting and media artist who majored in Western Paint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moved to Jeju in 2014. Park chose an old wood as the most Korean object, realizing it in his work of modern western style of art. Park held his solo exhibition Conceptlessness at Kensington Hotel Gallery, Jeju, in 2016. His group exhibitions include like plant at Art Space IAa, Jeju, in 2018, Jeju Young Artists 2 Person Exhibition at ICC JEJU in 2016, Jinkyeong Art Contest at Gangseo Culture Center in 2015, Gyeomjae Jeongseon Exhibition at Gyeomjae Jeongseon Memorial Hall, Seoul, in 2014, and campus 10 art festival at 63 Building, Seoul, in 2014. Park received the Presidential Award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ion Exhibition.

주변의 자연물을 여러 과정의 중첩으로 새롭게 표현하려 한다. 야간에 각기 다른 시선과 시간대에서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한 장으로 엮어내고 그것을 여러 장으로 출력하여 이어 붙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약간의 뒤틀림 초점의 왜곡, 오차와 장시간 노출에 의한 흔들림이 뒤섞인 장면을 만들어 내기에 있어 나무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무를 주로 찍는다. 영상작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첩과 겹에 대한 작업이다. 여러 장의 사진을 엮어 영상으로 편집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스쳐 지나가는 주변 환경을 생경하게 보이도록 만든다.

I intend to depict natural objects by overlapping them in multiple processes. I combine several photographs from different hours and different angles at night into a single frame, print copies of it and glue them end to end. I mainly take photos of trees because they are great objects to create a scene of slight focus distortions and blurring due to prolonged exposure and trembles. My video art is also a work of overlapping and layers. Editing several photographs into a video allows the viewers to see the daily environment from new perspectives.

숨쉬기 Breathing, Single channel video, 30"(10"), 2018

손유진 Son Yu-Jin



관당 Gwendang, 장지에 채색, 162.2×130.3㎝,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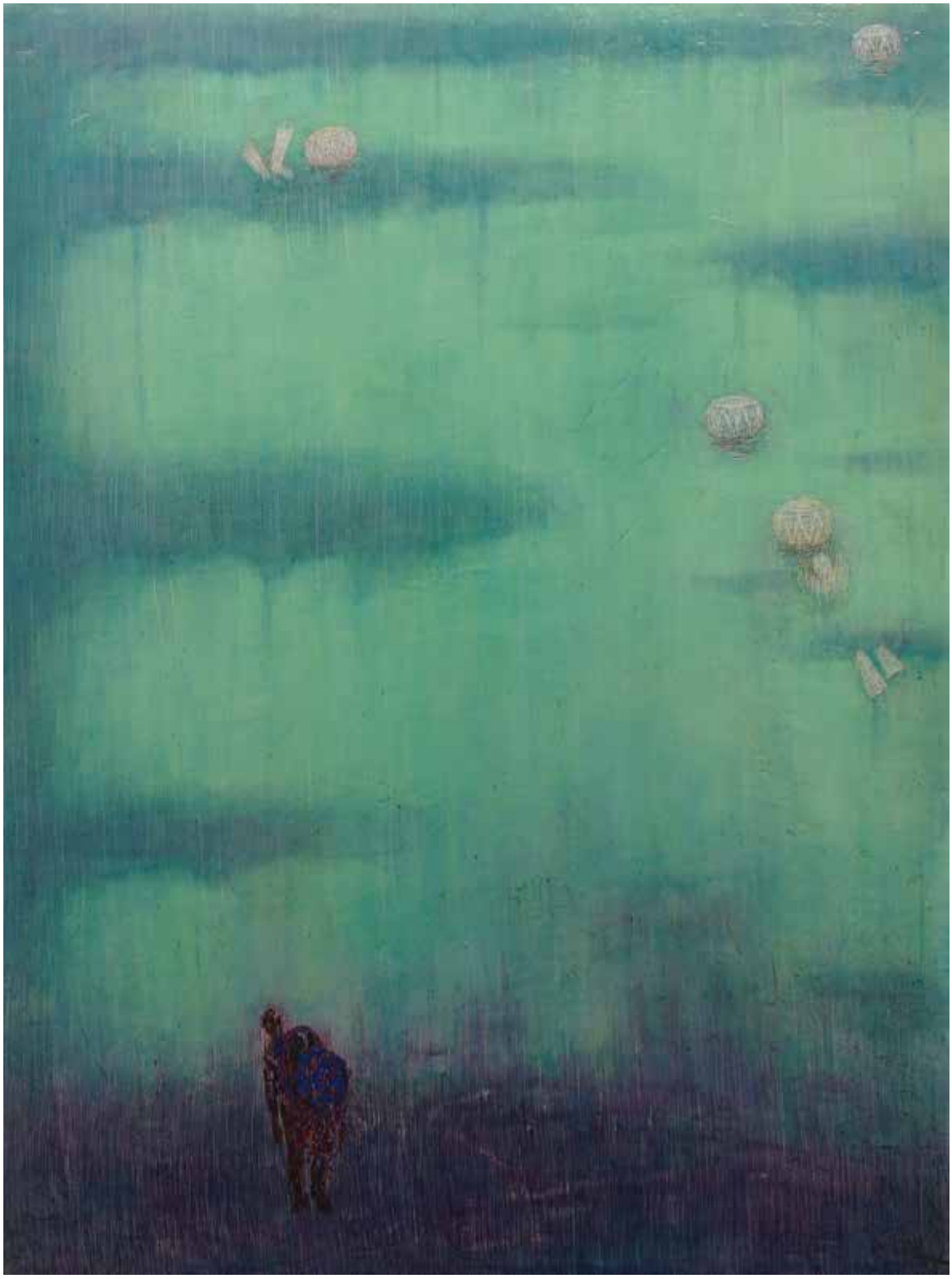
손유진은 '관계 미학'과 '믿음'에 관심을 두고 자신이 지니는 궁금증을 독특한 시각으로 재해석한다. 영에 대한 호기심과 믿음에 대한 회의로 그녀는 고향인 제주의 모습을 신비롭고 영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는 작가이다. 제주대학교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그녀는 2018년 연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가졌다. 그룹전으로 2018년 제주–서울 프로젝트 Ⅲ 〈제주 스타트업 아티스트〉 공간 41(서울), 이중섭미술관 신년기획전 〈또 하나의 가족, 개와 게〉, 이중섭미술관(제주), 2017년 제4회 제주아트페어 〈장소예찬, 예술가와 여관〉 옐로우 게스트하우스(제주), AWESOME 〈스물둘, 22년의 카페인〉 갤러리 카페 다리(제주), 2016년 제3회 제주아트페어 〈多樣同一〉 포레스트 게스트하우스(제주), 제주 동아시아 문화도시 컬처 디자이너 아시아 페어, 종합문화예술센터(제주)에 참가하였다. 2017년 제주도미술대전 평면 · 입체 부분에서 우수상, 2016년 한국화 부문 최우수상, 2015년 한국화 부문 특선을 수상한 바 있다.

SON Yu Jin concentrates on the aesthetics of relationship and faith, reinterpreting her curiosity through a unique perspective. Based on her interest in spirit and doubt of faith, she expresses her hometown Jeju in mysterious and spiritual images. She majored in Korean painting at Jeju National University and held her first solo exhibition at Yeon Gallery in 2018. Her group exhibition experiences include Jeju-Seoul Project III Jeju Start-Up Artist at Space 41, Seoul, and the New Year's exhibition of Lee Jung Seop Gallery Another Family Member, Dog and Crab, Jeju, in 2018. In 2017, she participated in the 4th Jeju Art Fair Ode to Place. Artist and Yeogwan at Yellow Guest House and AWESOME 22 Years Old, 22 Years Worth of Caffeine at Gallery Cafe Dari, Jeju. In 2016, she joined the 3rd Jeju Art Fair 多樣同一 at Forest Guesthouse, Jeju East Asia Cultural City Culture Designer Asia Fair and Culture Art Complex Center in Jeju. In 2017, SON won the Excellence Award in Planar and Three Dimensions at the Jeju Island Art Competition, the First Prize in the Korean Painting division in 2016, and Special Award in Korean Painting in 2015.

문득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의문이 생겼다. 자연스레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모든 것들은 분명 그들만의 정체성이 있었을 것인데, 그들은 나의 세계에 들어온 이후 색깔을 잃어버렸다. 익숙함과 편안함이란 그런 것이다. 본래 낯섦이란 방어적이고 폐쇄적인 감정의 발현이면서도 지극히 매력적인 자극이다. 낯선 것은 익숙해지기 마련이지만 익숙한 것이 낯설게 느껴지기는 어렵다. 나는 일상에서 느끼는 익숙한 것들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 그들의 정체성에 관한 의문이 생겼다. 나의 의문을 확장하니 제주 사회의 모습이 눈에 담겼다. 소위 '괸당'이라 부르는 단어는 '혈족, 친족 혹은 가까운 이웃'을 칭하는 말로, '괸당 문화'라 하면 '친인척, 그리고 오랜 이웃 간에 서로 믿고 의지하는 문화'라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제주 지역에만 존재하는 단어라는 것이 특징적인데, 이 단어야말로 제주의 사회 문화가 갖는 '익숙함'과 '낯섦'을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단어가 아닌가 싶다. 제주는 탐라국 이래로 삼별초 제주항쟁, 제주 4 · 3사건을 거치며 항상 피해를 보는 위치에서 생존해왔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에 의해 굳어진 방어적 태도의 고취는 살아남으려는 방편이었다. 제주의 문화는 의도치 않게 타지에서 들여와 섞여 고유문화로 자리 잡은 것들이 많다. 낯선 것이 익숙한 것으로 바뀌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어쩌면 아직도 누군가의 눈에는 낯설다고 느껴지는 것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익숙한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One day I wondered about everything I encounter in life. What felt usual and familiar must have had their own identity, which was lost upon entering my world. That is the essence of familiarity and comfort. The sense of unfamiliarity is a manifestation of both defensiveness and exclusiveness and a fascinating stimulus at the same time. One gets used to what was unfamiliar at first, but it is hard to rekindle the strangeness in familiar things. I began to have questions about usual things around me, about their identity in particular. Once I expanded my questions further, the culture of Jeju came to my mind. The word gwendang means a blood-related or close neighbor, and "gwendang culture" refers to the community of trusted relatives and long-time neighbors. A unique culture of Jeju, the term appropriately describes the sense of familiarity as well as foreignness of the society. Jeju survived the days of Samcheongcho Jeju uprising in the Tamra period and the April 3 incident. The defensive attitude was reinforced by these historical events as a way of survival. There are numerous elements of Jeju culture influenced by other regions which eventually established themselves as unique components. It took a long time for the foreign culture to settle among the people. Perhaps there still might be a lot of strange customs in someone's eyes. I hope to offer an opportunity to look at what we are accustomed to fresh eyes by

이가희 Lee Ga-Hee



warrior 1, 캔버스에 유채, 130.3×97㎝, 2018

이가희는 제주 해녀의 삶을 회화 작품으로 작업하는 작가이다. 지난 4년간 해녀들의 얼굴을 화면에 담아내다 최근부터는 해녀 공동체 문화를 통해, 집단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삶 앞에서 꿋꿋이 싸워야만 하는 전사와도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2016년 제1회 개인전 〈웃어봅서〉 제주문예회관(제주)을 시작으로 총2차례 개인전을 가졌다. 2018년 〈제25회 제주청년작가전〉, 2017년 제주도립미술관 〈물 때, 해녀의 시간〉, 2015년 이중섭미술관 기획전 〈아일랜드 유목민〉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가하였다.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에서 기업매입상을 받았으며, 2015년 이중섭 미술관 제7기 레지던시 입주작가로 활동 한 바 있다.

LEE Ga Hee paints the life of Jeju Haenyeo. In the past four years, she has been portraying their faces, but more recently, she began to depict their figures like warriors who are fighting off what lies ahead inward and outward through the Haenyeo community. LEE held solo exhibitions twice in 2016, starting with Laugh at Jeju Cultural Center. She participated in some group exhibitions including The 25th Jeju Young Artist Exhibition in 2018, The Tide, the Time of Haenyeo at Jeju Museum of Art in 2017, and the Lee Jung Seop Exhibition Island Nomad in 2015. In 2016, LEE was awarded a Corporate Purchase Prize a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rt Exhibition, and she was the 7th Residency artist at Lee Jung Seop Gallery.

살아가는 것이 전쟁과도 같다고 한다.
특히, 해녀들에게 바다는 수고에 따르는 풍성한 선물도 주지만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하는 전쟁터와도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해녀들의 모습이 마치 전사와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감히 작업을 하게 되었다.

They say that life is like a war.
In particular, the sea gives abundant gifts for their work, but it also is a battlefield which sacrifices a haenyeo's life. For that reason, I decided to be bold enough to compare the life of Haenyeo to one of the warriors.

이강인 Lee Gang-In

저 멀리 오름을 오르기를 꿈꾸면서 나무들 사이로 자전거를 탄다. 높게 뻗은 나무그늘 아래로 요리조리 길을 만들어 쌩쌩 달려본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다보면 멀리서 새소리도 들려오고, 아주 가끔씩 멧돼지를 만나기도 한다. 숲 가운데 잠시 멈추어 가슴 가득 짙은 숲 냄새를 맡아본다. 굳이 꼭대기에 오르지 않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 내일도 숲으로 자전거를 타러 가야지.

I ride a bike through the trees dreaming of climbing up an Oreum. Under the tree shades, I speed up and run over the untrodden path. I hear birds singing from afar, and I see a wild boar once in a while. I stop for a moment in the middle of the forest and smell the scent of the lush greens. I don't need to climb to the top of the hill. I will ride into the woods tomorrow again.

bike riding, 종이에 수채, 53×45.5㎝, 2018

너를 바라보는 순간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돼. 아주 오랫동안 너를 계속 바라보고만 싶어.

When I look at you, nothing else matters in the world. I just want to keep looking at you.

looking at each other, 종이에 수채, 45.5×38㎝, 2018

변덕스러운 날씨지만 조금만 기다려보자. 금세 맑아진 풍경이 눈 앞에 펼쳐진다. 언제라도 달려가면 기다리고 있을 아름다운 풍경들이 고맙다.

The weather is unpredictable, but I will wait it out. The clear view stretches out before my eyes. It is genuinely lovely that the beautiful scenery waits for me whenever I need it.

run into scenery, 종이에 과슈, 33.5×53㎝, 2018

이강인은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일러스트와 캘리그라피로 작업하는 작가이다. 숲과 바다를 동경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린다. 2017년 인스토어 〈제주그림생활〉 올리브영 제주탑동점(제주)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그룹전으로 2018년 제주신화 〈신나락만나락〉展 신나락만나락, 2017년 제주우먼 아트페스티벌 〈제주, 해녀를 품다〉 제주문화기획연구소, 2016년 기획 초대전 〈한글을 디자인하다〉 심헌갤러리(제주)의 단체전에 참가하였다. 네이버 그라폴리오 제주신화 〈신나락만나락〉 연재, 탐라국 입춘굿 타이틀, 산지천 갤러리 타이틀, 4 · 3 70주년 문화예술대전 타이틀, 4 · 3 평화축전 타이틀 등을 작업하였다. 2017년–16년 제주특별자치도 서예대전 캘리그라피 부분에 입선,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서예대전 캘리그라피 부문에 특선, 2015년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Lee Gang In is an illustration and calligraphy artist dealing with impressions of life. He longs for the forest and the sea, and he paints people who live among them. In 2017, Lee held a solo exhibition Jeju Painting Life at IIIN STORE, Olive Young Jeju Top-dong. Her group exhibitions include Jeju Legend Exhibition Shinnarak Mannarak in 2018, Jeju Women Art Festival Jeju, Embraces Haenyeo at Jeju Cultural Research Institute in 2017, Invitation Exhibition Design Hangul at Shimheon Gallery, Jeju, Korea in 2016. She also published Shinnarak Mannarak, a series of Jeju legends at Naver Gapolio and worked on the design of Tamra Ipchun gut, Sanjicheon Art Gallery, 4.3 70th Anniversary Culture and Art Contest and 4 · 3 Peace Festival. In 2017, she was the finalist in the Calligraphy division a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raditional Calligraphy Exhibition in 2017, and she won the Special Prize in 2016, and Excellence Award at Korea Calligraphy Design Competition in 2015.

파란 하늘 위에 넓게 피어오르는 구름. 넓게 펼쳐진 언덕 위에 드문드문 솟아오른 나무와 우두커니 서 있는 집 하나. 가만히 오래도록 보고 싶은 장면.

Clouds rise in the blue sky. A house with sparse trees on top of a wide open hill. A scene that I want to lay my eyes on for a long time.

run into scenery 2, 종이에 과슈, 38×45.5㎝, 2018

금방 오를 수 있을 것만 같은 오름이 만만찮다. 중간쯤 올랐을 때 뒤를 바라보니 나지막한 언덕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다. 꼭대기에 오르면 또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 조금 더 올라가 보기로 한다.

The Oreum was not as easy to hike as it seemed. Halfway up, I look down, and little hills spread out in horizontal layers. At the top, I wonder what kind of scenery is waiting for me. I decide to hike up a little more.

go up a hill, 종이에 과슈, 36×24㎝, 2018

현진 Hyun Jin

2018년 7월의 아침 8시와 11시 .33°30'11.46"N. 126°32'2.70"E, 캔버스에 아크릴 · 유리설치, 80.3×100㎝, 2018

현진은 회화, 오브제, 사진과 설치 작업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겉으로 표상되지 않는 것들이 지니는 실존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유리와 물을 주제로 지나간 시간과 그것에 대한 기억이 현재와 만나는 접점, 즉 '지나간 시간'에 관심이 있다. 홍익대에서 회화를 전공하였다. 2017년 〈오래된 미래: 젊은 작가들의 구도심에서 신개념 찾기〉, 황지식당(제주), 제주청년작가 이층사업 오픈스튜디오, 제주문화예술재단 2층(제주)의 그룹전에 참가하였다.

Hyun Jin deals with the "existential value of objects under the surface" through media such as paintings, objects, photographs, and installation. His interest lies in the point of time where the past and the memories border. He also explains it as the "time that is gone" in other words, and he depicts the theme in glass and water. HYUN majored in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He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including Old Future: Young Artists Finding New Concept in Old Downtown at Hwangji Restaurant, Jeju, and Jeju Young Artist 2nd Floor Open Studio by Jeju Culture and Art Foundation in 2017.

지난 몇 년 동안 작업하여 온 유리와 물, 그림자를 이용한 작품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관념이 있다. 지나간 시간과 그것에 대한 기억이 현재와 하나의 공간 안에서 만나는 접점에 관한 것이다. 시간이 흘러 있음과 없음의 사이에 동시에 존재하게 기억이 맺힌 시간을 현재의 시간으로 가져와 전시한다.

There is one notion that has penetrated my work of glass, water, and shadow from the past few years. It is about the past and the memories overlapping in the present space. I bring the time of memories to the present to exhibit the past and present can exist concurrently.

전시총괄 이 경 모
큐레이터 김 유 민
협력진행 정 슬 기

번 역 강 영 주
디 자 인 디자인 이야기

General Director LEE Kyung Mo
Curator KIM Yu Min
Cooperation Progress JUNG Seul Gi

Translation KANG Young Joo
Design Design iyagi

발행일 _ 2018. 08.
발행인 _ 김 수 열
발행처 _ 예술공간 이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4길 21
Tel. 064-800-9333, Fax. 064-800-9393
http://artspaceiaa.kr

Date of Publication_2018. 08.
Publisher _ KIM Soo Yeul
Contact _ Artspace IAa
21, Jungang-ro 14-gil, Jeju-si, Jeju-do, Republic of Korea
Tel. 064-800-9333, Fax. 064-800-9393
http://artspaceiaa.kr

ⓒ 2018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공간 이아

* 이 책의 저작권은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공간 이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 이 책에 수록된 도판과 글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공간 이아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JFAC 제주문화예술재단 Je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 IAa